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3

I. 서론

전도자는 1,2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무신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의 결과는 허무라는 결론을 내리며, 그 허무에 대한 실마리로 3장에서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함과 때를 정하셨고, 만물은 그 ()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흘러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한 삶은 영원을 사모하며 허무를 극복할 소망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4장에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학대, 시기로 인한 경쟁, 이기심으로 인한 고독, 명성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삶의 현장인 사회와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허무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자는 5장에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자이신 여

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다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이 결코 참 만족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전도자는 (),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결국 ()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II. 본문(전도서 5:1~6:12)

1. 형식적 신앙과 재물의 허무함(5:1-20)

본 장은 세상의 허무함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 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실제적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경멸하는 () 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촉구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의 ()의 허무함과 재물의 한계성을 언급하며 결국 ()을 감사히 여기며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임을 이야기한다.

1)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5:1-7)

전도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는 일상에서의 신앙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의 ()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 형식적 제사가 아닌, 겸손한 말씀 경청과 순종의 자세(1-3)

①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1a)

***‘네 발을 삼갈지어다’(쉐모르 라글레카)는 ‘네 행동을 () 하라’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발은 인간의 행동을 나타낸다. 사람의 발은 사람을 그릇 가게도 하고 바르게 가게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전도자는 거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말고 ()과 ()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1b)

***우매자의 제사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떠나 ()이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는 ()을 경멸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 행위는 죄를 ()로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③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2a)

④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2b)

⑤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3)

**또한 허황된 말로 장황하게 기도하는 자의 허무를 예시로 들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연약하기에 말을 장황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즉 () 하신 하나님과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임을 깨닫고 ()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2) 서원의 필연적인 이행과 이행하지 않는 자의 허무함(4-7)

①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4a)

②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5)

③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6a)

④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7)

**서원(네데르)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는 ()을 말한다.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을 통하여 기도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범죄, 실수 같은 표현을 쓰며, 경솔히 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할 수 없을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 즉 외식적인 기도, 무절제한 서원의 남발로 ()을 보이기보다는 경건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2) 탐욕에 찬 관료들의 학대와 재물의 무상함(5:8-17)

전도자는 당시 탐욕에 찬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연약한 빈민들을 학대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를 상기시키며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1) 학대가 오히려 당연한 세상에서의 허무(8-9)

①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8a)

②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8b)

③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9)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함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이 죄악을 감찰하시는 ()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즉 ❶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며 인생의 허무함이 야기된다. ❷허무함은 하나님을 떠남에서 비롯된다. ❸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의를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재물의 무상함과 헛됨(10-17)

①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10)

②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11)

③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12)

**재물에 대한 ()의 무익함을 이야기하며,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고, 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소비도 증가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 없어짐.

④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13)

⑤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14)

⑥그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15)

⑦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16)

⑧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17)

**과도하게 재물을 지키다 해를 받으며, 재물을 상실하여 해를 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하

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숭배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은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다.

“너희가 () 못하느니라(마6:24)”

(3)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누리는 복된 삶(18-20)

①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18a)

②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18b)

③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19a)

④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19b)

**인간은 자신의 현재 복을 자연의 소산물이나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오직 하나님의 (), 즉 ()로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⑤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20a)

⑥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20b)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전5:20, 새번역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태도는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선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

문이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기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시20:4)”

2.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허무(6:1-12)

전도자는 본 서를 통해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자세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 1장~3장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를 예시를 통해 말하며 그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인생의 허무를 더욱 무겁게 하는 부정부패, 이기심 가득한 ()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인간이 누리는 삶의 한계가 ()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6장에 와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만으로는 결코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념할 것은, 전도자가 제시한 삶의 의미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전도자는 ()를 통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본질을 명확하게 확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선물을 바라봐야 함을 강조한다.

1) 풍요로움에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소유의 허무함(6:1-6)

본 단락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재산과 장수와 자녀의 복도 하나님의 ()

이 없으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❶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있을지라도
() 소용이 없고, ❷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 (1)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음(1)
-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2a)
- (3)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 됨(2b)
- (4)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함(3)
- (5)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4)
- (6)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5)
- (7)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이야기 함(6)

**전도자는 ❶재물과 명예와 영화를 소유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으며,
❷영혼의 즐거움이 따르지 않는 세상의 부요는 ()을 부추기며 영원한 삶과 멀어지게 하기에 ❸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2) 복에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6:7-9)

앞 1~6절에서 ()를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전도자는 7~9절에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와 명예, 자손 등이 채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케 하시지 않는 한 결코 ()을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1)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음.(7)

**모든 수고는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나, 그 ()를 채울 수 없음

(2)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음.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도 유익이 없음(8)

**가난하나 분별력 있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자가 삶의 자세의 모습은 좋게 보일지라도 내면에 감추어진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9)

**가질 수 없는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즐기고 자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외적 조건의 충족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헛되기에, 허무한 인생의 노력과 애씀이 다시 ()
으로 올 것을 표현하고 있다.

3)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6:10-12)

본 단락에서는 전도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라는
주제를 요약하면서 절대적 구원자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있다. 주어진 질서와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설명(10절)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의 유
익 없음을 증거(11절)하며, ()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삶의 유
한성(12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1)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10a)

(2)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10b)

**히브리인들에게 ()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명칭뿐만 아니라 성격, 특
성, 능력, 모습 등 ()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즉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존
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
권적 섭리를 인정하면, 곧 ()이신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는
()이 될 수밖에 없다.

(3)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은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11)

(4)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12a)

(5)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12b)

**6장 전반부에서 다룬 재물과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을 이야기

한다. 인간의 삶 자체가 그림자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임을

이야기하며, ()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전도서 1장에서

제시한 ‘헛되고 헛되며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인

간이 할 수 없으며, 그 불가능에 대한 ()를 통해 자연스럽

게 생명의 근원이신 ()만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계획과 이해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